

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리라 믿는다.

10) 기자안식년제의 도입과 운영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과 비슷한 활동이다. 아카데미즘에 안식년제가 있다면 저널리즘에도 안식년이 있어야 한다. IMF사태 이후 기자의 노동강도가 위험한 수위에 있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지식산업이고 정신문화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사는 전문인이란 뜻이다. 그들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간적 여유는 바른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5. 맺음말

오보의 질은 악화되고 있고, 오보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회의 신경계통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오보는 또한 언론의 주요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언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보발생의 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보발생의 중심 주체는 아무래도 기자 자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은 기자문제가 강구된 다음에 검토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사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한다.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자의 배출과 양성은 예비기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자를 뽑는 충원과정, 인사배치과정, 교육훈련과정, 윤리적 규제과정, 기사실명제과정, 심의비평과정, 기사정정과정, 대기자제도의 도입·운영과정, 그리고 기자안식년제의 도입·운영과정 등이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강구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